【자유교회 소식】

1. 예배 후 친교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친교식사 후에는 한글학교가 있습니다.
2. 올해 우리교회의 중요한 영적목표는 성경일독입니다. 나누어드린 성경 읽기표에 따라 성경을 읽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요성경공부는 성경일독을 돕기 위한 성경일독학교로 진행 중입니다.
4. 지난 미전국 스케이트 대회에서 이경택 학생이 준우승하였습니다. 2월 3일(목)-6일(주일)에는 밀워키에서 올 시즌 마지막 시합에 참가합니다.
5. 다음 주 예배 후 2월 월례회로 모입니다. 재정보고 및 각 부서 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다음 주일 오후 4:30-6:30까지 금란교회에서 감리교회 임원교육이 있습니다.
7. 2010년 Tax보고를 위한 헌금영수기가 필요하신 분은 오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미서북부지방 지방회가 3월 7일(월)에 우리교회에서 개최됩니다.

◇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315.00	
감사헌금:	$530.00	
주일헌금:	$93.00	
특별헌금:	$18.00	합 계: $956.00

중보기도 제목

- 우리교회에 주신 오천 명을 먹이는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 월드비전을 통해 우리교회가 돕는 어린 생명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인도하옵소서.
- 우리교회가 협력 선교하는 샌프란시스코 한생명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도록 하옵소서.
- 가정과 사업의 문제로 장기간 결석하시는 분들이 다시금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도록 하옵소서.

주 일 예 배

오전11:00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Praise	다 같 이
신앙고백	주기도문	다 같 이
찬 송	Hymn 44	다 같 이
기 도	Prayer	김범준 집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마태복음 25:40	인 도 자
설 교	울지마 톤즈	이진우 목사
질문과응답	Question & Response	다 같 이
찬송과봉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다 같 이
파송과축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기도 : 안숙자 집사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 일 한 어 예 배	오전 11시
주 일 교 회 학 교	오전 11시
한글학교&Band모임	주일 오후 1:30
수 요 성 경 공 부	수요일 오후 7시
Nexus Youth Group	수요일 오후 7시

교 회 를 섬 기 는 이 들

목 회 사 역	이진우 목사
행 정 사 역	최원춘 권사 조진원 권사
선 교 사 역	조병선 집사 김범준 집사
찬 양 사 역	허 진 성도 최종원 성도
미디어 사 역	윤지호 집사
친 교 사 역	최미선 권사
한 글 학 교	안미나집사 김범준 집사 조아라

2011년 1월 30일 제232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METHODIST CHURCH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Methodist Church

1702 Milton Way., Milton WA 98354
Tel (253) 661-5436, 227-1775
Homepage: www.jayoochurch.org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 울지마 톤즈 –이태석 신부 다큐 ◘

다큐멘터리가 조명하는 고 이태석 신부는 내전으로 상처입은 수단 사람들에게 자신을 던져 헌신한 사람이다. 한 인간의 재능과 노력은 다양한 결실을 맺었다. 신부이자 의사였던 그는 이곳에서 사람들을 찾아 병을 치료했고, 병원을 건설했다.

“배고픔을 달래주기보다 자립할 용기”를 주고 싶어 학교를 만들었고, 소년병으로 끌려가 총과 칼을 잡았던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다.

그러던 어느 날, 휴가차 한국을 찾았던 그는 건강검진을 통해 말기암 진단을 받는다. 다시 수단으로 돌아가고자 열심히 투병했지만, 결국 그는 돌아가지 못했다.

생전의 이태석 신부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지만, 그전에 그는 궁핍한 어린 시절을 보낸 아들이자 동생이다.

이태석 신부를 기억하는 톤즈 사람들 또한 그를 신부이기 전에 톤즈의 평화를 지켜준 유일한 친구로 생각한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여정은 그의 사진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며 음악을 연주하는 아이들의 모습이다.

내전으로 긴장에 휩싸인 군인들은 그의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눈물을 가장 큰 수치로 생각한다는 딩카족은 끝내 울고 만다. 〈울지마 톤즈〉는 한 인간의 희생이 세상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키는지를 실감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다.

“여러분이 고국에서 버리는 1%만 주세요. 우리는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 이태석 신부가 뿌린 씨앗 ◘

이태석 신부님이 선종하신 후에, 수단어린이장학회는 숙원 사업이었던 학교건립을 마무리 짓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재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건축봉사자와 어렵게 만들어 놓은 병원에서 근무할 의료 봉사자를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한 백승호씨는 3개월 동안 건축봉사자로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와 나중에야 알려졌지만 지병을 앓고 있던 상태라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백승호씨는 톤즈강에서 모래를 직접 퍼와 시멘트와 섞어 벽돌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치 않은 인부들로 인해 하루 만들 수 있는 벽돌은 잘해야 300여 개를 넘기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가 톤즈에서 체류한 3개월 동안 학교를 세우기 위해 인부들과 함께 만든 벽돌은 모두 20,000여장이 넘습니다.

건축자재와 인부를 구하는 일이라면 나이로비는 물론, 분쟁지역을 지나야하는 다른 지역들까지도 기꺼이 오가며 학교건축에 매달렸습니다. 그의 피와 땀은 현지 건축업자가 80만 불에 견적을 냈던 일을 단 30만 불로 마무리 짓는 성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모은 돈인지를 잘 알기에 아끼고 또 아껴서 만들어낸 대단한 열매였습니다.

50도에 육박하는 더위와 입에 전혀 맞지 않는 식사, 그리고 힘든 일로 보낸 90일은 뜨거운 정열과 사랑이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일을 마무리 지은 백승호씨. 하지만 그는 지난 11월 6일 오후 3시 30분 케냐 나이로비 국립병원에서 말라리아로 결코 돌아오지 못 할 영원의 길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기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